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일	06:30 (새 벽)	19:00(저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알 림

- 오늘은 제58주년 본당의 날입니다. 미사 후 기념 떡 증정합니다.
- 본당 2022년 달력 광고 신청 안내
 - 신 청 인: 본당 교적자
 - 접수기한: 2021년 10월 17일까지
 - 접 수: 본당 사무실
 - 신청 초과 접수 시 추첨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미사 재개 지침
 - 재개일 : 8월 9일 ~ 당분간
 - 참례 가능 신자 : 본당 신자, 공간별 10%
 - 미사 후 성체 분배 없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베이사이드 성모신심(일명 '미카엘회') 주의!!

- 그릇된 성모신심으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들을 담고 있는 갈색성모스카폴라, 묵주, 기적의 패, 유인물(지구의 멸망, 죽음과 심판, 인류에게 떨어질 크나큰 고통 등의 내용) 주의!
- 이 그릇된 신심이 시작된 미국 뉴욕 브루클린 교구장은 2014년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를 거쳐 "베이사이드 운동"은 교회에 대한 반대를 통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면에서 계시의 본질적인 측면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배포하는 스카폴라를 착용하거나 유인물을 읽지 말라고 권유했다.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견진성사 일정

예식 연습	15일(금) 저녁7시40분 / 대성전 대부모님과 함께 참석 요망
견진 성사	16일(토) 오전 11시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거리두기 4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및 안내 사항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10/10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10/17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다음 주일(10/1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0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9월29일 ~ 10월05일)

교 무 금	9,918,000원
주일헌금	3,371,450원
군인주일 2차 헌금	1,520,000원
본당의날 후원	돈술신용협동조합 100만원 손상민50만원 이계명50만원 오○○10만원 한금봉100만원 최희옥 5만원 지성진 5만원
감사헌금	김미혜10만원 서만심 6만원 엄기자10만원 김수자10만원 우제성 5만원 권○○2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독 서
10/10	황원선	최웅조 정홍자
10/17	박혜선	최승일 정재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0/10	오광운	장인홍	이계명 손상민	이운영
10/17	김영배	최승일	박형순	오광운 김광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89. 한편으로 나의 삶은 가족을 비롯한 소모임과 이루는 관계로만 축소될 수 없습니다. 더 넓은 관계망 없이, 곧 현재의 관계망뿐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전의 관계망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를 만들어 준 관계망 없이 나 자신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중하는 사람과 이루는 관계에는 그 사람이 나와 관계를 위해서만 사는 것도 아니며, 내가 그와 연결되어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건강하고 참다운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 우리를 열어줍니다. 오늘날에는 가장 숭고한 사회 인식이 겉보기에는 깊은 관계처럼 보이는 자기중심적 친분에 밀려 쉽게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장 고귀한 형태의 우정은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마음에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부부의 유대와 우정의 유대는 주위에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 자신 밖으로 나가 모든 이를 환대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들을 다른 이들과 대조되는 존재로 규정하는 폐쇄된 집단과 자기중심적인 부부는 이기주의와 단순한 자기 보호의 표현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90. 사막에 은거하던 많은 작은 공동체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맞아들이는 너그러운 능력을 길렀으며, 그로써 환대의 신성한 의무에 대한 모범적인 표지를 보여 준 것은 그저 어쩌다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서에서 확인하듯이 중세 수도원 공동체들도 환대를 실천하였습니다. 비록 수도원의 침묵과 질서가 방해받을 수도 있었지만 베네딕토 성인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각별한 주의를 세심히 기울여” 대접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환대는 자기 무리를 뛰어넘는 인류와 만남인 이러한 도전 과제와 은총을 저버리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수도자들은, 그들이 기르고자 하던 모든 가치가 자신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여는 능력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특별한 가치

91. 사람은 윤리적 가치로 제시되는 몇 가지 태도를 계발할 수 있습니다. 곧 그러한 가치는 용기, 절제, 근면과 다른 미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 윤리덕의 행동들을 적절히 이끌어 가려면 그 행동들이 다른 이들을 향한 개방과 일치와 활력을 어느 정도까지 성취해야 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활력은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마도 우리는 겉으로만 덕을 쌓을 것이고, 이로써 공동생활을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인용하면서 - 탐욕스러운 개인이 하는 절제는 조금도 덕성스럽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또 다른 말로, 사랑이 없으면 다른 덕들은 엄밀히 말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신” 계명들을 실행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